

SK, 국제 신용등급 “투자등급 획득”

Moody's, Ba1에서 투자적격등급 Baa3로 ... 수익성에 지배구조 개선

SK에 대한 국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SK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Moody's가 자사에 대한 장기 신용평가 등급을 기존 Ba1에서 Baa3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SK는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Moody's 관계자는 “시장의 안정적인 기반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주요 관계기업의 영업 호조세로 인한 계열사 리스크 감소 및 그동안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를 인정해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인 Baa3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SK 관계자는 “2006년 2월 S&P가 신용등급을 상향한 데 이어 Moody's의 신용등급도 상향됨으로써 S&P, Moody's, Fitch의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등급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등급 상향은 2003년 신용등급이 하락한 이후 이사회 시스템 개선 및 독립성 강화 등 2년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꾸준히 기울여온 노력 및 개선 성과를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완전한 신뢰회복의 반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화학저널 2006/05/15>